

●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23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선관위 '무더기' 불출석...투표용지 축소에 "기억 안 나"	정치	주요뉴스
2	낙폭 키운 '반도체 쏠림'...조정 돌입? 차익 실현?	경제	주요뉴스

(1)기사/뉴스요약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늘(2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선관위 주요 책임자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란 엄중한 비판을 받은 뒤에야, 일부 관계자들이 뒤늦게 출석했습니다.

첫 소식,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가운데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 단 2명만 출석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 7명, 서울시 선관위원장,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이 무더기로 불출석하자 여야 의원들은 국민을 무시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 현 사태가 우리 헌정질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인데 이 자리에 불출석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서울시 전 선관위원장, 송파구 선관위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한 비상임위원 전원이 불출석했는데요.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라고 봅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면 투표용지 '50% 인쇄 축소 지침' 결정과 관련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단 취지로 말했습니다.

[노태악/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사무총장의 전결로써 아마 이 정도의 짧은 내용의 보고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철환 중앙선거위원장 직무대행도 선거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엔 선을 그었습니다.

[위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 현재 선관위가 마비될 지경에 있습니다. 결재 라인이 무너져버립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건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투표중단 사태가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지역의 책임자인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은 국회의 질타가 이어지자 오후가 돼서야 뒤늦게 출석했습니다.

핵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늘(23일)부터 시작됐는데, 첫날부터 선관위 주요 책임자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했다.

(2)기사/뉴스요약

<앵커>

오늘(23일) 우리 증시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유독 큰 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를 만큼 올라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차익 실현인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마다 나오는 AI 고점론은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고비용과 경쟁 심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빅테크들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우리 증시의 경우 일본 3.5%, 타이완 1.3%에 비해 하락률이 몇 배나 높았습니다.

지난 8거래일 동안 SK하이닉스가 42%, 삼성전자가 16% 단기간 급등하며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상황에서 두 종목 비중이 시가총액 절반이 넘다 보니 증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 실장 : SK하이닉스 미국 ADR(주식예탁증서) 상장이 오늘 새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연이 될 거라는 점, 그리고 (코스피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사실상 이제 올해는 어렵다.]

최근엔 연기금 매도세도 눈에 띕니다.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은 5거래일 동안 코스피에서 1조 5천억 원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잠시 늘려놨던 국내 주식 비중을 다음 달부터 다시 줄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주식을 팔며 증시가 하락한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시장에선 본격적인 조정장 진입을 얘기하기엔 좀 더 지켜봐야 한단 의견이 많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추월한 뒤 오늘 바로 폭락하자, "시총 추월이 강세장 종료 신호 중 하나"라고 분석한 보고서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해당 연구원도 오늘 하락은 단기 조정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만/하나증권 연구원 : (시가총액 추월은) 지수가 단기적으로 과열의 양상을 보인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사점과 그 시그널이 됐다. 이격이 크게 벌어진 부분들에 대한 조정 약간 그런 형태로...]

단기적으로는 오는 24일 예정된 미국 마이크론의 분기 실적 발표와 금리 인상 분위기 간 힘겨루기 속에서 반도체 강세장의 방향성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핵심: 오늘(23일) 우리 증시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유독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

●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헤테로토피아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만 일상적인 공간의 논리와는 다르게 기능하는 '균열된 공간'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어린 시절의 다락방·박물관·영화관 등이 해당한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상흔효과	개인이 특정 시기에 겪은 부정적 경험이 이후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노동시장에서는 초기 실업이나 취업 지연이 장기적인 임금 감소와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